

北韓의 遺蹟·遺物 發掘 實態 및 南北韓 學術交流 方案

任 孝 宰*

1. 序 言

이념과 정치 체제를 달리한 채 40년이란 긴 세월이 흘러버린 남·북한간에는 統一을 向한 여러 분야에 걸쳐 先決되어야 할 문제들이 하나 둘만이 아니다. 남·북한간에 선결할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데에는 그렇게 쉽지 않은 여러 장벽이 가로 놓여있는 것도 사실이나, 다행히 금년에 들어서면서부터 남북적십자회담을 위시하여 체육·경제 등 여러 분야에서 직접·간접적인 접촉 및 교류가 이루어짐에 따라 그 밖의 다른 분야에서도 그 가능성은 증대되고 있다.

학술 분야에 있어서 가장 교류 가능성이 높은 분야중의 하나가 考古學이라는데에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考古學에서 다루는 문제점들은 民族的 同質性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非競爭的이고 이데올로기를 배제한 實證的인 문제들이며 교류 방법에 있어서도 人的인 교류가 아니더라도 物的인 교류를 통한 연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 민족의 기원과 변천과정의 연구와 관련된 문제점들은 어느 한쪽에서만 해결해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남·북한 협동 연구의 필요성은 다른 어느 학문 분야보다도 절실히 요구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이와같은 점을 감안하여 남·북간의 적십자회담, 경제회담에

* 서울大 教授(考古學)

이어 학술교류가 이루어질 경우 考古學分野의 교류를 어떻게 추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인가에 대해 쓴 글이다. 따라서 먼저 북한 고고학의 실태를 분석하고 남한 고고학의 현황과 비교한 후에 현 실정에서 어떠한 교류 단계를 거쳐서 한국 고고학 연구를 저해하는 장애물을 제거하고 학술교류·협동연구의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를 밝히는 것이다.

2. 南·北韓 考古學研究 實態分析

1. 北韓의 考古學研究 實態

북한은 해방 직후부터 선사시대에서 역사시대에 걸친 고고학적 유적·유물의 발굴 조사를 활발하게 추진하여 왔다. 1947년 함경북도 웅기군 송평동 패총을 효시로 발굴 조사 사업에 착수한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구석기시대 유적 7개소, 신석기시대 유적 10개소, 청동기시대 유적 약 30개소, 원삼국시대 유적 약 15개소, 삼국시대 이후의 유적 40여개소 등 100개가 넘는 유적을 발굴하였다.

이러한 각 시대에 걸친 유적 발굴 결과 우리 역사 해명에 필요한 중요한 자료들이 제시되었다. 먼저 구석기시대에서는 1963년과 1964년에 걸쳐 함북 웅기군 굴포리 서포항과 부포리에서 타제석기가 출토됨으로써 일제시대에 부인되었던 구석기시대의 존재가 확인되었다. 이어 1966년에는 평양시 상원읍 부근의 검은 모루 동굴에서 60~40만년 전의 전기구석기시대의 것으로 주장되는 홍적세 동물화석과 석기가 발견되었고 1969년과 1970년 사이에는 상원읍 청청암동굴과 황해도 평산군 해상 동굴에서도 동물화석과 석기가 발견되었다. 근래에는 1972년과 1973년에 걸쳐 평안남도 덕천 승리산 유적에서 구석기시대 중기와 후기에 해당하는 화석인골이 조사되었다.

신석기시대의 대표적인 유적으로는 황해도 봉산군 지탑리, 평남 온천군 궁산리, 함북 웅기군 서포항, 평양시 남경유적등을 들 수 있다.

1959년에 발굴조사된 지탑리 유적에서는 5기의 수혈주거지를 비롯하여 신석기시대의 특징적인 석기·토기등이 다량 출토되었는데 특히 한 토기내에서 피 또는 조라고 여겨지는 탄화곡물이 발견됨으로써 이미 신석기시대 말기에 이르러 농경이 시작되었음을 확인하게 해주었다. 1950년에 조사된 궁산유적에서는 5기의 수혈주거지와 함께 토기·석기등이 다양하게 출토되었고 특이하게도 水牛의 뼈가 출토됨으로써 당시의 기후가 지금보다 온화하였음을 알 수 있게 해주었다.

청동기시대의 유적은 크게 주거유적과 분묘유적으로 구분된다. 주거유적으로서 대표적인 것으로는 함북 회령군 오동, 평양시 금탄리, 함북 무산군 호곡동, 황해도 송림시 석탄리등을 들 수 있고 분묘유적으로서 대표적인 것으로는 황해도 황주군 심촌리, 평남 개천군 묵방리, 황해도 연탄군 오덕리등을 들 수 있다. 이 중 신흥동, 세죽리, 호곡동, 금탄리 등의 유적에서는 청동단추·청동끝등이 출토됨으로써 일제시대때 부정되었던 청동기시대의 존재를 확인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초기철기시대 및 원삼국시대의 유적 역시 주거유적과 분묘유적으로 대별되는데 1958년 평양시 정백리에서 발굴된 도광묘(土壙墓)에서는 세형동검(細形銅劍)을 비롯한 청동제품, 철제품과 함께 『夫租歲君』이라는 문자가 새겨진 銀印이 발견되었다. 여기서 夫租란 옥저를 말하는 것으로, 그 君長의 인장과 함께 발견된 銅器, 鐵器등은 이 시대의 편년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되었다.

그런데 이와같은 성과는 국가에 의한 정책적인 지원아래에서만 가능하였던 것인데 특별히 고고학적 발굴조사사업을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였던 데에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다. 즉 그들은 마르크스-레닌주의적 유물사관에 입각하여 우리의 선사시대를 원시공동체사회로, 고대사회를 노예소유제사회로 규정하고 고고학 발굴을 통하여 그 방증자료를 획득코자 하였던 것이다. 또한 북한 정권의 정통성과 정당성을 합리화시키기 위하여 평양부근의 유적을 집중 발굴하고 평양을 한민족의

기원지로 주장하는 등 고고학을 정치선전의 매개물로 이용하고 있다. 그러면 이러한 상황아래서 고고학정책이 어떻게 시작되고 변화되었는지 간단히 살펴보기로 하겠다.

1946년 4월, 북한의 임시인민위원회는 “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 보존령”을 공포하고 각도 인민위원회내에 “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 보존회”를 설치하여 각지의 유적·유물·천연기념물을 보존·관리토록 하였다. 그러나 이 위원회는 각도 인민위원회 교육부내에 설치된 까닭에 충분한 성과가 없게되자 이를 보완하여 1948년에는 “물질문화유물 보관에 관한 규정”을 공포하였고 이에 의거하여 내각직속의 “조선물질문화유물조사 보존위원회”를 설치하여 내무상 책임아래 모든 유적·유물의 발굴·보존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그 후 1952년에는 “과학원”을 설립하여 그 안에 “물질문화연구소”를 두고 유물·유적의 조사·발굴·연구를 전담케하고 보존·관리·복원·개수등은 정무원 직속의 “문화유물보존지도국”에서 관장하도록 하였다. “물질문화연구소”는 1957년 “고고학 및 민속학연구소”로 개편되었고 1964년에는 “과학원”에서 분리된 “사회과학원” 소속으로 바뀌었다.

현재 북한의 문화재 관리 행정은 이러한 변천 과정을 거쳐 두 분야로 나누어지는데 첫째 분야는 문화재의 보존·관리·복원·개수등에 관한 것이고 둘째 분야는 유적·유물의 조사·발굴·연구에 관한 것이다. 첫째 분야의 업무는 중앙에서는 정무원 직속의 “문화유물보존지도국”이, 지방에서는 “문화유적관리소”가 담당하고 있고 두번째 분야의 업무는 중앙에서는 사회과학원 소속의 “고고학 및 민속학연구소”가, 지방에서는 각도의 “역사박물관”이 전담하고 있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북한의 고고학 연구는 한마디로 국가적 차원에서 매우 조직적으로 수행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유적의 발굴은 고고학 연구소를 비롯한 일정한 정부 기관에서만 행하게 하고 발굴 결과는 그 기관지를 통해 발표하게 하는 등 유적의 발굴연구가 매우 조직적

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고고학 장려에 역점을 두어온 북한
 한의 정책은 유물사관에 따른 역사해석을 유도하는데 고고학이 유효할
 수 있다는 평가아래 진행되었으며 평양부근의 구석기시대 유적에서부터
 시작되어 고조선과 고구려를 거쳐 발전되어온 한반도문화의 전통을 부
 각시킴으로써 북한 정권의 정통성조작을 도모하고 우리의 민족문화를
 공산주의식 계급문화로 개조시켜 결국 정치적 선전활동의 매개물로 활
 용하는데 그 의도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북한에서 발굴 조사된 고고학적 유물이나 유적은 이러한 목표
 에 의거하여 해석되어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현재 발표된 연구 결과들
 은 상당 부분 왜곡·조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
 은 편년으로서 지금까지 남한에서는 신석기시대에만 국한해보더라도 방
 사성탄소연대측정법에 의한 과학적 편년 자료가 56例나 축적되어 보다
 과학적인 토대위에서 정확한 편년을 시도하고 있는데 반해 북한에서는
 지금까지 수많은 유적을 발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과학적 방법을 이용
 한 예가 없이 단지 유물의 형식 분류나 층위에 의한 상대편년만으로 역
 사를 짜맞추고 있는 점이다.

예를 들면, 1966년에 발굴된 상원군 검은모루 유적에서 발굴된 소량
 의 타제석기와 동물화석을 근거로 우리나라의 구석기문화가 구석기시대
 전기인 60~40만년전까지 올라간다고 주장하나 과학적방법에 의한 절대
 연대가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어서 아직까지 학계에서는 공인받지 못하
 고 있다. 신석기시대의 경우 역시 형식학적 방법이나 층위구분에 의한
 상대연대를 근거로 공산문화 1, 2, 3, 4기등과 같은 분기를 설정하여 놓고
 각 분기에 일률적으로 500~1000년씩의 절대연대를 부여한 다음 그것을
 정당한 것으로 간주하고 새로운 유적이 발견되면 그 연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고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상은 청동기시대 이후부터 더욱 뚜렷해지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낙랑군의 영역에 관한 것이다. 즉 초기 철기시대부터의 대표적 묘

제인 토광목곽분의 연대를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상대연대결정법에 따라 서기전 2세기를 중심으로한 낙랑군 설치시기로 잡아놓고 기원전 108년에 평양을 중심으로 한 서북지방에 낙랑군이 설치되었다면 그 시기의 유적·유물이 당시 한나라의 유적유물과 비슷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목곽묘가 성행하였던 사실은 그 지역에 낙랑군이 없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라하여 낙랑군의 설치 위치를 다른데서 찾아야 한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낙랑군의 소재를 당시 고조선의 중심지였던 요동지방으로 잡고 있는데 이는 아두런 논리적·실증적 근거도 없이 단지 낙랑군이 평양지역에 없어야 한다는 필요성에서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있는 대표적인 예인 것이다.

북한의 고고학 연구 현황에 있어서 또 한가지 지적할 수 있는 것은 해방직후부터 1960년대 초반까지는 매우 활발한 발굴조사와 연구활동이 이루어졌으나 1960년대 후반부터는 급격히 줄어들었고, 1970년대 이후에는 전국적으로 연평균 1개유적의 발굴도 실시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것은 여러가지 각도에서 해석할 수 있겠는데 경제적인 여건 때문에 조사에 필요한 경비를 충분히 감당할 수 없게된데도 원인이 있겠으나, 보다 근본적으로는 해방직후 의욕적인 조사를 진행하였던 근본 원인인 유물사관을 실증해 줄 수 있는 자료의 획득이 점차 한계에 부딪혔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2. 南韓의 考古學研究 實態

1946년 5월 국립중앙박물관에 의해 실시된 경주로서리140호분(壺杆塚)의 발굴로부터 시작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유적이 발굴 조사되었다. 특히 1962년에는 문화재보호법이 제정됨으로써 유적·유물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고, 1970년대에 들어와서는 대규모 국토종합개발사업이 수행되면서 파괴 내지 수몰위기에 처한 유적에 대해 대규모 긴급조사발굴이 행해졌다.

이런 대규모 지역 단위의 발굴을 제외하고도, 그 발굴 유적의 수는 구석기시대 6개소, 신석기시대 11개소, 청동기시대 24개소, 원삼국시대 24개소, 삼국시대 45개소, 기타 8개소 등 모두 100개소가 넘는다.

이와같은 유적 발굴은, 북한의 경우와는 탄대로, 해방후 부터 1950년대 말까지 주로 국립박물관에 의한 대형 신라고분에 치중되었고, 1960년대에 접어들면서 부터는 문화재관리국, 대학박물관, 기타 발굴능력을 갖춘 기관에 의해 지석묘·주거지 등 선사시대의 유적, 백제·신라·가야의 고분이 꾸준히 발굴되었다. 이외에도 울릉도·서해도서·남해도서에 대한 종합학술조사가 이루어졌다. 1970년대에 들어와서는 대규모 구제발굴이 이루어졌고 대학박물관을 중심으로 문제점 해결을 위한 발굴도 실시되기에 이르렀으며 1980년대 이후에도 이러한 추세는 증가 일로에 있다.

연구 경향을 살펴보면, 일정한 정부기관에서만 발굴과 연구가 이루어짐에 따라 나타나는 북한의 획일적인 경향과는 달리 남한에서는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발굴담당자에 따라 독자적인 연구 및 해석을 할 수 있고 때로는 상이한 견해 속에서 보다 정확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또한 고고학적인 연구 방법 면에서도 방사성탄소연대측정법, 화분분석, 유물의 성분분석 등 과학적인 연구방법을 동원하여 보다 정확한 근거위에서 우리 문화의 실체를 파악하고 있다.

3. 南·北韓 學術交流의 必要性和 學術交流方案

1. 南·北韓 學術交流의 必要性

서언에서도 언급한 바와 마찬가지로 考古學은 우리 한민족의 기원에서부터 시작하여 신석기시대·청동기시대·원삼국시대·삼국시대에 이르는 한민족의 발전과정을 그 시대에 사용된 유물·유적의 연구를 통해 밝혀내는 학문이기 때문에 그 어떤 분야보다도 상호간의 교류 및 협동

연구가 절실히 요구되어 왔다. 특히 한국 문화를 살펴보면 한반도에서 독자적으로 이룩된 문화도 적지 않으나 선사시대에는 주로 시베리아·연해주 등 북방과의 문화적 관련성이 깊고, 역사시대에 들어오면서는 중국과의 교류가 활발해짐에 따라 중국문화와의 관련성이 깊어지는 등 주로 북쪽으로 이어지는 문화권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문화의 전체적인 실상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남·북한간의 교류가 시급한 실정에 있다.

예를 들면 서울 암사동에서 발굴된 신석기시대의 주거지와 유물들은 북한의 궁산리·지탑리와 흡사하고, 그간 서울대학교가 4년간 발굴 조사한 강원도 오산리 신석기시대 평저형토기류는 북한의 함북 용기군 굴포리 신석기 문화와 공통성이 보인다. 또한 청동기시대의 유적인 여주 혼암리, 충남 송국리, 진주 대평리 등의 유적 중 혼암리 유적은 평양 부근의 남경 유적과 비교하면, 탄화곡물이 출토된 점과 함께 연대상에서도 동시기의 것으로 판단되어 대비 연구가 절실히 요구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나 남한에서는 상호간에 서로의 유적·유물과 발굴보고서를 직접 보고 연구할 수 없기 때문에 제삼국을 경유하여 입수된 간접적인 자료를 통해서만 연구가 가능함에 따라 오히려 남북한을 동시에 왕래할 수 있는 일본인에 의한 연구보다 불리한 경우조차 있었던 것이다.

만약 앞으로도 남북학술교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지금과 같은 상황이 계속된다면 우리의 문화를 우리 손으로 직접 연구하지 못하고 제삼국에서 제삼국인에 의한 연구 결과를 받아들이고 따라야만 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매달려 있을는지 모른다.

2. 南北韓 學術交流 方案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서는 지금 당장이라도 유적·유물 실건을 위한 상호 방문이나 공동 발굴 연구등을 실현하여야 할 형편이나, 수십년간

막혔던 장벽을 일시에 허물기란 용이한 일이 아닐 것이다. 따라서 상호 교류가 용이한 단계에서부터 시작하여 단계적으로 그 도와 빈도를 높여 가면서 공동연구의 단계에까지 이끌어가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유적발굴보고서나 연구논문등의 자료 교환을 통해 교류를 위한 기반을 구축한 다음, 유물의 교환 전시와 같은 물적 교류를 통해 人的 교류의 길을 트고 남북학술교류의 분위기를 고조시킨 다음, 상호 유적의 방문·공동세미나 개최 등의 협동연구 체제를 구축해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물적접촉에 있어서 남북한간 직접적인 접촉이 불가능하다면 제삼국을 통한 합동전시회 개최등과 같은 간접적인 접촉을 시도함이 필요할 것이고, 공동세미나와 같은 인적교류도 제삼국에서 간접적으로 접촉해 본 다음에 국내에서의 직접적인 접촉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이다.

구체적인 예로서 먼저 유물의 교환 전시에 대해 언급해 보면, 그간 북한에서는 고구려 유적을 다수 발굴하였으므로 “고구려문물전”과 같은 특별전시회를 우리 측에서 초청 전시케 하고 그 대신 “신라”·“백제” 문물전을 교환 전시토록 한다. 이러한 교환 전시가 실현될 때 교환전시 특별발표회를 개최할 수도 있다. 이러한 발표회는 양측 전문가들이 직접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되므로 향후 한국고고학의 제문제를 해명하기 위한 공동세미나 개최의 기초를 이룰 수 있다. 세미나의 주제는 양측 고고학계의 연구 현황에 비추어 연구가 비교적 진척되어 있는 분야부터 택함이 좋다. 이러한 공동세미나의 주제로서는 한국구석기문화의 성격문제, 신석기시대의 편년 및 농경기원문제, 청동기시대의 편년문제, 삼국의 형성 시기, 고조선 및 낙랑문제, 광개토태왕비문제등을 들 수 있다.

남북학술교류의 최종단계는 공동연구체제의 구축단계이다. 구체적으로는 매년 발굴한 유적의 정기보고회, 고고학전국대회, 문화재해외공동 전시, 고고학자의 교류, 유적의 공동 발굴, 고고학공동연구소 설치 등

을 생각할 수 있다.

4. 結 語

우리 韓民族은 單一民族으로서 韓半島에 남겨진 文化遺産은 우리 민족 모두의 共有財産이다. 그동안 北韓은 北韓대로, 南韓은 南韓대로 독자적인 발굴과 연구를 진행해 오면서 각기 나름대로의 成果를 이룩하여 왔으나 문헌 자료를 통해 연구할 수 있는 다른 분야와는 달리 考古學이 갖는 특수성 때문에 그간 많은 제약이 따랐었고 분야에 따라서는 南·北韓間의 견해차가 극심한 분야도 나타나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南·北韓間의 學術交流가 필요하며, 學術交流에 있어서는 段階的 接近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아직도 비정치적인 考古學 분야에서조차 상호간의 자유로운 교류나 협동 연구의 길이 막혀 있다는 것은 여간 불행한 일이 아니다. 이러한 의미에서도 남북간의 학술교류는 하루라도 더 늦추어야 할 이유가 없는지 모르겠다.

〈表〉 年度別 遺蹟發掘事例

발 연	굴 도	유적명	종 류	시 대	소 재 지	출 전
1949	초도	주거지의	고분	청동기	함북 나진군 초도	“라진초도원시유적발굴보고”, 유적발굴보고 제 1집, 1955.
	안악 1,2,3호	삼국시대		황남 안악군	“안악 제 1,2호분 발굴보고”, 유 적발굴보고 제 4집, 1958. “안악 제 3호분 발굴보고”, 유 적발굴보고 제 3집, 1958.	
1950	궁산	주거지	신석기	평남 온천군 운하리	“궁산원시유적발굴보고”, 유적 발굴보고 제 2집, 1957.	
1953	요동성총	고분	삼국시대	평남 순천군 용봉리	“평남 순천군 용봉리 요동성 총조사보고”, 고고학 자료집, 1958.	
	원산 중평리 (~1957)	산포지	청동기	원산시 중평 리	이장섭, “원산시 중평리 원시유 적”, 문화유산 1958-6.	

발굴연	구분도	유적명	종 류	시 대	소 재 지	출 전
		운성리 (~1966)	고 분	삼국시대	황남 은율군 운성리	이순진, "운성리 유적 발굴보고", 고고학자료집 4, 1974.
		회령오동 (~1955)	주거지	청동기~ 초기철기	함북 회령군	"회령오동 원시유적 발굴보고", 유적발굴보고 제 7 집, 1959.
1954	평양역전 2室墳	대청리 1호분	고 분	삼국시대	평양시	"평양역전 2실분 발굴보고", 고고학자료집 1, 1958.
		남옥리	"	"	황북 은파군	"황해북도 은파군 대청리 1호분 발굴보고", 고고학자료집, 1, 1958.
		상 동	"	"	평남 은산군	"평안남도 은산군 남옥리 고분 발굴보고", 고고학자료집 2, 1959.
			"	"	황북 황주군 순천리	"황해북도 황주군 순천리 상동 유적조사정리보고", 고고학자료집 2, 1959.
1955	원암리	주거지	청동기	평양시 강남군 원암리	정백운, "강남 원암리 원시유적 발굴보고서", 문화유산 1958-1.	
	공귀리	주거지	청동기	강계시 공귀리	"강계시 공귀리 원시유적 발굴보고", 유적발굴보고 제 6 집, 1959.	
	금탄리	주거지	신석기~ 청동기	평양시 승호구역	"금탄리 원시유적발굴보고", 유적발굴보고 제 10집, 1964.	
	낙랑리 85호분	고 분	삼국시대	평양시	"평양시 낙랑리 85호분 발굴보고", 고고학자료집, 1, 1958.	
	대안리 1호분	고 분	삼국시대	평남 용강군	"평안남도 용강군 대안리 제 1호묘 발굴보고", 고고학자료집 2, 1959.	
	한밭골	토광묘	초 기 철기시대	황북 황주군 천주리	"황해북도 황주군 천주리 한밭골 토광묘 조사보고", 고고학자료집 2, 1959.	
	선봉리 1호	고 분	삼국시대	황북 황주군	"황해북도 황주군 선봉리 1호묘 발굴정리보고", 고고학자료집 2, 1959.	
	진천읍		초 기 철기시대	자강도 진천군 진천읍	황기덕, "자강도 진천출토명도전에 대하여", 문화유산 1957-1	
1956	가장리	벽회고분	삼국시대	평남 증산군 가장리	채희극, "평안남도 증산군 가장리 벽회고분 정리간략보고", 문화유산 1959-2.	
	화성리	고 분	삼국시대	평남 대동군	"평안남도 대동군 화성리 쌍좌분 정리보고", 고고학자료집 1, 1958.	
	하석동	토광묘	초 기 철기시대	황북 은파군 갈현리	"황해북도 은파군 갈현리 하석동 토광묘 유적조사보고", 고고학자료집 2, 1959.	

발원	구도	유적명	종 류	시 대	소 재 지	출 전
		상매리	석상분	청동기 시대	함북 청진시 농포리	“청진 농포리 원시유적 발굴”, 문화유산 1957-4
		공민왕 현릉	고 분	고려시대	개성시 개풍 군	“고려 공민왕 현릉”, 고고학자 료집 3, 1963.
1957		솔피골			황북 봉산군 송산리	황기덕, “황해북도 봉산군 송산 리 솔피골돌돌림무덤”, 고고학 자료집 3, 1963.
		태성리	고 분 주거지	청동기~ 삼국시대	평남 강서군 태성리	“태성리 고분군 발굴보고”, 유 적발굴보고 5, 1958. 전주농, “태성리 저수지건설장 에서 발견된 유적정리에 대한 개 보” (1), (2) 문화유산 1958-2, 3
		덕성리	전축분	삼국시대	평남 박천군	신의주역사박물관, “평안북도 박 천군 덕성리 전곽무덤발굴 간략 보고”, 문화유산 1961-5
		용산리	산 성	삼국시대	평북 태천군 용산리	“용산리 산성에서 발견된 고구 려 석각물”, 문화유산 1958-6
		용성리	신라고분	삼국시대	강원도 안변 군 용성리	양익용, “안변 용성리 고분발굴 보고”, 문화유산 1958-4
		지탐리	주거지	신석기	황북 봉산군	“지탐리 원시유적발굴보고”, 유 적발굴보고 제 8 집, 1961.
1958		심촌리 (~1959)	주거지	청동기	황해북도 황 주군	황기덕, 이원근, “황주군 심촌 리 청동기시대 유적발굴보고”, 고고민속 1966-3
		부조예 군묘	고 분	삼국시대	평양시 낙랑 구역 정백동	이순진, “부조예군무덤 발굴보 고”, 고고학자료집 4, 1974.
		심귀리	주거지	청동기~ 초기철기	자강도 시중 군 심귀리	정찬영, “자강도 시중군 심귀리 원시유적발굴 중간보고”, 문화 유산 1961-2
		신흥동	주거지	청동기	황북 봉산군 봉산읍	서국태, “신흥동 팽이그릇 집자 리”, 고고민속 1964-3
		석교리	주거지	청동기	황남 용연군 석교리.	황기덕, “황해남도 용연군 석교 리 원시유적발굴보고”, 고고학 자료집 3, 1963.
		신창군 하세동리		철기시대	함남 신창군	“신창군 하세동리에서 드러난 고 조선 유물에 대하여”, 고고민속 1963-1
		태성리 고 분	고 분	삼국시대	평남 강서군 태성리	“강서군 태성리 저수지내부 지 대의 고구려무덤”, 고고학자료 집 3, 1963.
		석천산	지석묘	청동기	평남 용강군	전주농, “평안남도 룡강군 석천 산 동쪽의 고인돌”, 고고학자료 집 3, 1963.

발견 연도	구분도	유적명	종 류	시 대	소 재 지	출 전
		망암동	토광묘~ 옹관묘	초 기 철기시대	평남 안악군 복사리	전주농, “복사리 망암동 토광무덤과 독무덤”, 고고학자료집 3, 1963.
		약수리	벽화고분	삼국시대	평남 강서군 약수리	주영현, “약수리벽화무덤 발굴 보고”, 고고학자료집 3, 1963.
		어지 든 지 구			황북 봉산군, 은파군, 황 주군 일대	황기덕, “1958년 춘하기 어지 든 지구 관개공사구역 유적정리 간략보고”(1), (2), 문화유산 1959-1, 2
		당터산			평북 정주군 석산리	신의주역사박물관, “정주군 석산리 당터산 원시유적조사 간략 보고”, 문화유산 1959-2
		대성산 일 대 (~1961)		삼국시대	평양시 대성 구역	“대성산일대의 고구려 유적에 관한 보고”, 유적발굴보고 제 9 집, 1964.
1959		범의구석 (~1961)	주거지	신석기~ 초기철기	함북 무산군 무산읍 호곡 동	황기덕, “무산 범의 구석 유적 발굴보고”, 고고학논문집 6, 1975.
		미송리	동굴유적	신석기~ 청동기	평북 의주군 미송리	김용간, “미송리 동굴유적발굴 보고”, 고고학자료집 3, 1963.
		복사리	주거지	청동기	황남 안악군 복사리	전주농, “황해남도 안악군 복사리 원시집자리”, 고고학자료집 3, 1963.
		긴 동	지석묘	청동기	황북 황주군 심촌리	황기덕, “황북 황주군 심촌리 긴 동 고인돌”, 고고학자료집 3, 1963.
		부덕리 수역동	토광묘	초기철기	황남 재령군 부덕리	이순진, “재령군 부덕리 수역동의 토광무덤”, 고고학자료집 3, 1963.
		만경대	토광묘	초기철기	평양	김종렬, “만경대 토광무덤 발굴 보고”, 고고학자료집 3, 1963.
		조아리, 서해리, 범동리, 송암리 (~1960)	고 분	삼국시대	자강도 자성 군	정찬영, “자성군 조아리, 서해리, 범동리, 송암리, 고구려고분 발굴보고”, 고고학자료집 3, 1963.
		당모루	산포지역		평북 동림군 인두리 당모 루	신의주역사박물관, “동림군 인두리 당모루 원시유적조사 간략 보고”, 문화유산 1959.
		공포리	고 분	삼국시대	황북 연산군	석광준, “황해북도 연산군 공포리 무덤매 발굴간략보고”, 문화유산 1962-1
		미 립 설 바위	주거지	청동기	평양시 사동 구역	고고학연구소, “미림설바위 원시유적정리보고”, 문화유산 1960-3

발원 구도	유적명	종 류	시 대	소 재 지	출 전
	복사리	벽화고분	삼국시대	황남 안악군	“황해남도 안악군 복사리 벽화무덤”, 고고학자료집 3, 1963.
	무진리	벽화고분	삼국시대	평양시 중화군 무진리	“전 동명왕릉 부근 벽화무덤”, 고고학자료집 3, 1963.
	불일사지	사 지	고 려	개성군 관문군 선적리	“불일사지”, 고고학자료집 3, 1963.
	황 남 고려자기 도요지	도요지	고 려	황남 평천군 봉암리 용진군 온동리	“황해남도 고려자기 가마터 발굴보고”, 고고학자료집 3, 1963.
1960	서포항 (~1964)	주거지	구석기~ 청동기	함북 용기군 굴포리 서포항	김용남, “서포항조개무지 발굴 중간보고”, 문화유산 1961-3 김용간, 서국태, “서포항원시유적발굴보고”, 고고민속논문집 4, 1972.
	토성리 (~1961)	주거지	신석기~ 초기철기	자강도 증강군 토성리	이병선, “증강군 토성리 원시 및 고대유적발굴 중간보고”, 문화유산 1961-5.
	묵방리	지석묘	청동기	평남 개천군 묵방리	김기웅, “평안남도 개천군 묵방리 고인돌발굴 중간보고”, 문화유산 1961-2. 김기웅, “평남 개천군 묵방리 고인돌발굴 중간보고”, 고고학자료집 3, 1963.
	덕인리	지석묘	청동기	함북 김책군 덕인리	진수복, “함경북도 김책군 덕인리 (고인돌)총리간략보고”, 문화유산 1961-3.
	장성리			증강군 장성리	김종혁, “증강군 장성리 유적조사보고”, 문화유산 1961-6.
	용당리	곽 충		황남 해주시	“해주시 룡당리 룡당포 조개무지 유적조사보고”, 고고민속 1963-1.
	팔청리	벽화고분	삼국시대	평남 대동군 팔청리	“대동군 팔청리 벽화무덤”, 고고학자료집 3, 1963.
1961	와산동	주거지	청동기	평양시 서성구역	김용남, 서국태, “평양시 서성구역 와산동 평이그릇 유적조사보고”, 문화유산 1961-6.
	입석리	주거지	청동기	평양시 승호구역	“평양시 승호구역 입석리 원시유적발굴간략보고”, 문화유산 1962-4.
	룡산리	토광묘	삼국시대	평양시 만경대구역	“룡산리 고분 정리보고”, 문화유산 1962-4.
	내문리	석상분	고 려	철원군 내문	양익룡, “철원군 내문리 고려 돌

발굴 연도	굴 도	유적명	종 류	시 대	소 재 지	출 전
					리	상자무덤에 대하여”, 문화유산 1961-5.
1962	세죽리 (~1963)	주거지	용관묘	신석기~ 철기시대	평남 영변군 영변읍	김정문, “세죽리 유적발굴중간 보고”(1), 고고민속 1964-2. 김영우, “세죽리 유적발굴 중간 보고”(2), 고고민속 1964-4.
		장덕리		구석기	함북 회대군 장덕리	“함경북도 회대군에서 덜코끼리 (맘모스)의 유골을 발견”, 문화 유산 1962-2.
		명사리	고 분	삼국시대	황남 신천군	도굴호, “신천 명사리에서 드러 난 고구려 독널에 대하여”, 문 화유산 1962-3.
		장산동 1, 2호	고 분	삼국시대	평양시 서성 구역	주영헌, “장산동 제 1호 무덤 및 제 2호 무덤에 관하여”, 문화유 산 1962-6.
		장잠장 왕경무덤	고 분	삼국시대	황남 신천군 봉황리	전주농, “신천에서 대방군 장잠 장왕경의 무덤발견”, 문화유산 1962-3.
1963	강로리	주거지	청동기	증화군 강로 리	김영우, “증화군 강로리 유적조 사보고”, 고고민속 1964-1.	
		대성산성	연 지	삼국시대	평양시 대성 구역	“전제현, 대성산성 못(池) 발굴 중간보고”, 고고민속 1964-3.
1964	신암리 (~1965)	주거지	청동기	평북 용천군 신암리	이순진, “신암리 유적발굴중간 보고”, 고고민속 1965-3. 김용간, 이순진, “1965년도 신 암리 유적발굴보고”, 고고민속 1966-3.	
		영흥읍	“	청동기	함남 영흥군	서국태, “영흥읍 유적에 관한 보 고”, 고고민속 1965-2.
		석탄리 (~1973)	“	“	황북 송림시	이기린, “석탄리 유적발굴보고” 유적발굴보고 12집, 1980.
1965	중 리	주거지	청동기	함남 북청군	안영준, “북청군 중리 유적”, 고 고민속 1966-2.	
		주암리	“	“	황북 인산군	백룡규, “인산군 주암리 월시유 적 발굴간략보고”, 고고민속 1966-2.

주요 참고문헌(北韓 發刊)

1. 發掘報告書

- 遺蹟發掘報告(과학원 고고학 및 민속학연구소 발행) 제 1집(1955)~제13집(1983) 총 13冊

- 第 1 集, “羅津草島原始遺蹟發掘報告”, 1955.
- 第 2 集, “弓山原始遺蹟發掘報告”, 1957.
- 第 3 集, “安岳第 3 號墳發掘報告”, 1958.
- 第 4 集, “安岳第 1·2 號墳發掘報告”, 1958.
- 第 5 集, “台城里古墳群發掘報告”, 1959.
- 第 6 集, “江界市公貴里原始遺蹟發掘報告”, 1959.
- 第 7 集, “會寧五洞原始遺蹟發掘報告”, 1960.
- 第 8 集, “智塔里原始遺蹟發掘報告”, 1961.
- 第 9 集, “大成山一帶의 高句麗遺蹟에 관한 報告”, 1964.
- 第 10 集, “金灘里原始遺蹟發掘報告”, 1964.
- 第 11 集, “德川 승리산 遺蹟發掘報告”, 1978.
- 第 12 集, “石灘里遺蹟發掘報告”, 1980.
- 第 13 集, “鴨綠江·禿魯江流域高句麗遺蹟發掘報告”, 1983.

- 考古學資料集(과학원 고고학 및 민속학연구소 발행) 제 1집(1958)~제 6집(1983) 총 6冊

〈考古學資料集〉

- 第 1 集, “大同江流域古墳發掘報告”, 1958.
- 第 2 集, “大同江 및 載寧江流域古墳發掘報告”, 1959.
- 第 3 集, “各地遺蹟發掘報告”, 1963.
- 第 4 集, ‘祥原 검은모루 舊石器時代遺蹟發掘報告’ 外, 1974.
- 第 5 集, “貞栢洞墳墓群發掘報告”, 1978.
- 第 6 集, “樂浪區域一帶古墳發掘報告”, 1983.

〈考古民俗論文集〉

- 第 1 集, ‘祥原 검은모루 遺蹟發掘中間報告’ 外, 1969.
- 第 2 集, ‘豆滿江流域의 靑銅器時代文化’ 外, 1970.
- 第 3 集, “各地遺蹟整理報告”, 1971.
- 第 4 集, ‘西浦項原始遺蹟發掘報告’ 外, 1972.
- 第 5 集, ‘紀元 4世紀까지의 高句麗墓制에 관한 研究’ 外 1973.

第 6 集, '高句麗古墳壁畫의 特性과 文化史的意義' 外, 1975.

第 7 集, '德川 승리산 遺蹟의 年代에 대하여' 外, 1979.

第 8 集, '弓山文化에 대한 研究' 外, 1983.

2. 考古學關係 定期刊行物

- 문화유산(1957~1962)
- 고고민속(1963~1967)
- 고고민속논문집 제 1 집(1969)~제 8 집(1983) 총 8冊
- 역사과학

3. 單行本

- 도유호 : 조선원시고고학(1960)
- 주영현 : 고구려벽화고분의 편년에 관한 연구(1961)
- 주영현 : 탈해문화(1971)
- 김용남외 : 우리나라 원시집자리에 관한 연구(1975)
- 사회과학원고고학연구소 : 고구려문화(1975)
- 사회과학출판사 : 고조선문제연구(1973)
- 사회과학원고고학연구소 : 고조선문제연구 논문집
- 과학백과사전출판사 : 조선고고학개요(1977)
- 이지린외 : 고구려사연구(1976)
- 과학백과사전출판사 : 남경유적에 관한 연구(1984)
- 조선전사 1~5 (1979)외에 여러 권이 있다.